

모 로 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²	G D P	1,055억 달러 (2013)
인구	33백만 명 (2013)	1 인 당 GDP	3,206달러 (2013)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8.38 (2013)

- 모로코는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와 3,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함.
-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중동 평화와 안정 유지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에 힘입어 카사블랑카 등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발달하였고, 인광석 매장량 세계 1위로 광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으며 농업 부문 종사자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모하메드 6세 국왕이 1999년에 즉위한 후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등 아랍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서사하라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1976년 시작된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 (Polisario Front)과의 무력충돌은 1991년 UN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농작물 작황이 경제성장을 좌우하며, 2013년 경제성장률의 증가분도 농업 생산 개선이 크게 기여

○ 모로코 경제는 2012년 기준 GDP의 14.7%, 고용의 40%를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구조로 농작물 작황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성장률: 3.6%('10) → 5.0%('11) → 2.7%('12) → 4.4%('13^e)

- 농업 성장률: -1.7%('10) → 5.0%('11) → -6.0%('12) → 14.0%('13^e)

○ 2012년에는 여름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최대 교역상대국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부진하였으나, 2013년에는 농업 생산 개선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 예상되는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한 3.2%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의 보조금 삭감 여파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관리변동환율제에 따른 환율 안정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연 1~2%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9월 에너지 보조금 삭감 조치에 따른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인상의 여파가 4분기에 반영되기 시작한 관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연료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보조금이 추가 삭감될 계획인 데다 불충분한 강우량이 식량 생산을 저해하여 식료품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최근 비농업 부문이 침체를 계속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 3%를 유지하는 확대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 완화를 위해 정기적인 통화시장 개입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경제성장률	3.6	5.0	2.7	4.4	3.2
재정수지 / GDP	-4.6	-7.1	-8.3	-7.7	-6.4
소비자물가상승률	1.0	0.9	1.2	1.9	2.5

자료: IMF, EIU.

-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삭감 단행으로 2013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개선된 GDP의 7.7%를 기록
- 재정수지는 2012년에 연료 및 식료품 부문의 보조금 지급 증가(2012년 GDP의 6.6% 수준),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확대된 GDP 대비 8.3%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3년에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400억 디람(약 48억 달러)으로 GDP의 4.5%에 달하면서 재정부담이 누적되어,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9월에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단행하고 연료가격을 인상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7.7%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음.
- 2014년에도 보조금의 추가 삭감, 탈세 단속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릴 계획이며, 동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되면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6.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0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발행 여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 등 대외여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관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기후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2년 기준 GDP 구성은 관광 등 서비스업이 53.2%, 인광석 등 광물,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광공업이 31.7%, 농·수산업이 15.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중동의 정세, 테러 발생 유무, 유럽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 농·수산업 부문은 고용의 약 40%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모로코는 관개시설 부족으로 강우량 변화에 따라 농산물 작황의 변동이 심함.

○ 정부는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큰 실정임.

□ 또한, 유럽에 대한 높은 대외거래 의존도

○ 수출,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외국인투자 등 대외거래 관련 수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대외거래의 약 75%를 유럽에 의존하는 관계로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주요 수출국('12): 프랑스(21.0%), 스페인(17.3%), 브라질(5.4%), 인도(4.9%)

- 주요 수입국('12): 스페인(13.1%), 프랑스(12.1%) 중국(6.9%), 미국(6.8%)

○ 정부는 교역상대국 다변화를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높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이자 각종 광물의 개발 가능성도 증대

- 모로코는 전 세계 인광석 매장량의 약 3/4(추정 580억 톤)을 보유하여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인광석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량의 45.5%를 점유하고 있음.
- 인광석 생산 및 가공산업이 모로코 GDP의 6%를 차지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인광석 개발과 관련된 비료, 화학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인광석 산업을 자유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이외에도 아연, 납, 구리, 망간 등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틀라스 산맥의 미탐사 지역에는 상당량의 금, 은, 코발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지중해 연안의 양호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발달

- 관광산업은 인광석 수출에 이어 모로코 제2의 외화 수입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모로코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930만 명에 달함.
- 유럽과 근접한 지중해에 위치하고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추어 이집트와 함께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유럽인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순이며 은퇴 후 장기 체류하는 유럽인의 수도 증가세에 있음.
- 2010년 11월 선포한 'VISION 2020'에서는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2배인 2,000만 명까지 늘림으로써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목표를 설정, 8개 관광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객실 공급능력을 20만 개까지 확충하여 연간 관광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임.
- 그러나 모로코의 관광 부문은 최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다. 정책성과

□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비농업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 부문에서는 2012년 초 프랑스 Renault가 진출하여 13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의 생산을 본격화한 이후 같은 해 상반기에 자동차 부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4% 급증하였음.
 - 항공우주 부문에서는 EADS, Boeing 등 주요 항공산업 기업 약 100개가 모로코에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의 항공기 및 열차 제조업체인 Bombardier가 카사블랑카의 산업지대에 2억 달러 규모의 제조설비 건설을 개시하여 2014년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인프라와 제도 개선 등으로 물류, 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 가능성

- 현재 진행 중인 북부의 Tanger Med 항구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물류 부문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슬람 금융법 초안이 금년 중반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 부문의 성장도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개발 통합 프로그램 실시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총 전기소비량의 42%를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각 14%)로 충당할 계획임.
 - 5개 풍력발전단지(40억 달러) 건설 등을 통해 풍력발전량을 2020년까지 연 2,000MW로 확대하고, 5개 태양광발전단지(90억 달러) 건설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량을 2020년까지 연 2,000MW로 확대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약 95%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기술전문가 양성 등에도 기여하게 됨.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등 실시

- 2011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현재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은 National Plan for logistic(물류), Emergence Plan(주요 산업), Halieutis Program(어업), Maroc Vert(농업), National port strategy 2030(항만 개발) 등이 있음.
- 또한 201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이 기본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며,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가동되는 등 향후 모로코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큰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빈민가의 정비, 비도시 지역의 인프라 확충, 교육/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예산지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미 과중한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보조금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외에 섬유, 전자부품, 관광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거래상대국인 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수출 등이 부진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 2013년에는 국제수요 침체 및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광석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모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경제성장률의 전년 대비 상승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의 해외교민 송금액과 관광 부문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8% 및 2.0% 증가에 그쳤음.

- 인광석 수출은 2015년부터 세계경기 회복 예상으로 본격적인 증가가 기대되며, Renault의 새로운 자동차 생산공장은 생산된 차량의 90%를 수출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수입의존도 저하로 상품수지 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축소가 기대됨.

□ 감소를 거듭하던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등으로 2013년 증가세로 반전

- 외환보유액은 2012년에는 유로존에 대한 수출 감소, 인광석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9% 감소한 15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3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168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도 FDI 및 원조 유입의 증가로 인해 17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UNCTAD에 의하면, 모로코의 FDI 유입액은 2013년 약 26억 유로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하였음.

□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외채 증가 지속

- 인프라 개발, 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로 외채가 꾸준히 늘어나 2013년 말 총외채잔액은 383억 달러, GDP 대비 외채비중은 36.3%를 기록하였음.
 - 모로코 정부는 2012년 12월 처음으로 달러 표시 채권(15억 달러)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추가로 7.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채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말 2.3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D.S.R.은 2013년 말 기준 9.6% 수준으로 추정됨.

□ 2012년 IMF의 예방적 유동성 지원(PLL) 승인

- 2012년 8월 IMF는 모로코에 대해 2년 기한으로 62억 달러 규모의 PLL*을 승인하였으며, 보조금 및 연금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음. 이에 따라 모로코는 2013년 9월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보조금 개혁을 일부 시행하였음.

* PLL(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IMF가 회원국의 재정정책, 금융 부문 건전성 등 일부 조건이 지원 조건에 미충족되더라도 사후 정책 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경 상 수 지	-4,209	-8,337	-9,843	-9,351	-7,888
경 상 수 지 / G D P	-4.1	-8.1	-10.0	-8.9	-7.2
상 품 수 지	-17,318	-21,387	-21,885	-21,655	-21,178
수 출	12,309	15,946	16,992	17,247	18,320
수 입	29,627	37,333	38,877	38,902	39,498
외 환 보 유 액	21,762	18,802	15,812	16,835	17,766
총 외 채 잔 액	27,472	32,255	36,555	38,328	41,976
총 외 채 잔 액 / G D P	30.3	32.5	38.0	36.3	38.6
D S R	7.7	7.1	8.1	9.6	9.1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반정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모하메드 국왕의 집권과 정치안정 지속

- 모로코는 왕정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1년 2월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국왕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포괄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7월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안은 투표율 74.8%, 찬성률 98.5%로 통과되었음.
 - 헌법 개정안은 완전한 입헌군주제의 도입,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및 사법권의 독립, 베르베르어의 공식어 채택, 남녀평등 및 개인 자유 보장, 부정부패 척결,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총선 전후인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왕의 여전한 핵심권력 및 군부 장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발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는 등 같은 시기에 주요 권력이 교체된 여타 주변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헌법 개정을 통한 총선 실시 등 평화적 민주화 진행

- 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는 온건 이슬람세력인 정의개발당(PJD)이 전체 395석 중 107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되었고, 2007년부터 연립정부(5개 정당)를 이끌던 독립당(PI)은 60석에 그쳤음.
- 2011년 11월 29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개정 헌법에 따라 제1당인 PJD의 Abdulilah Benkirane 사무총장을 총리로 지명하고 연립정부 구성권과 국왕이 독점했던 장관 임면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유혈사태 없이 민주화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제2당인 PI는 2013년 7월 정부 보조금 삭감안에 반대하여 연정을 탈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3개월간의 새로운 연정 구성을 거쳐 10월 10일 모하메드 6세 국왕이 Benkirane 총리 2기 내각 각료들을 임명하였음.
 - 친(親)왕실 성향의 독립국민연합당(RNI)이 새로 연정에 참여하면서 8개 각료직을 차지하는 등 여당과 왕실의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PJD에 대한 기존 지지세력의 이탈 가능성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정치개혁, 민생안정 관련 반정부 시위 지속

-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동년 2월 모로코에서도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위는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되었으며, 3월에 국왕이 포괄적 개혁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일단락되었음.

- 이후에도 국왕의 권력 제한, 실업 문제 해소,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및 범죄 활동 발생

- 2011년 4월 관광명소인 제마 엘 프나 광장 부근에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MI)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한 외에도 알카에다가 연계된 마약 밀수 등 범죄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폴리사리오, 알제리와 긴장관계

- 서사하라 영유권 문제는 1991년 UN의 중재로 모로코와 서사하라 무장 독립단체인 폴리사리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UN의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으나,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며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서사하라와 접경하고 있는 알제리도 이 지역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폴리사리오를 지원하여 양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모로코, 폴리사리오, 알제리 등은 UN의 중재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유럽과 긴밀한 관계 유지

- 모로코는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2004년에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이후 교역규모가 확대되었음.
-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는 역사, 지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에 제1차 모로코-EU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2013년 3월에는 EU가 모로코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동 FTA가 성사될 경우 민간 교류, 기업관계 등 경제관계가 심화 발전할 것으로 보임.

□ 원조 수혜를 통한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

-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모로코의 안정을 위해 5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원조를 제공키로 지난 2012년 합의한 바 있음.
- 카타르 정부는 동 패키지 원조의 일부로 2013년 모로코에 대한 향후 5년 동안 12.5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협약을 체결하였음.
- GCC는 2011년부터 모로코와 요르단을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초청한 바 있음. 당시 모로코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GCC 가입이 수출 및 FDI 유입 증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였음.

□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2011년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관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1983년에 급격한 외채 증가로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성공적으로 외채상환태도를 개선하였음.
- 201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지원잔액은 단기 7억 3,610만 달러, 중장기 50억 5,320만 달러로 총 54억 2,780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단기 200만 달러(0.3%) 및 중장기 3,920만 달러(0.8%)로 집계됨.
- 한편,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06년 모로코의 국가신용도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시킨 이후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와 Fitch는 모로코에 대해 중동 민주화 시위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치 상황,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FDI 유입 등의 강점을 반영하여 모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BB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Moody's는 이보다 한 등급 낮은 Ba1 등급을 부여하였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C1 (2013.11)	C1 (2013. 3)
OECD	3 (2014. 1)	3 (2013. 1)
Fitch	BBB- (2013.11)	BBB- (2012.11)
S&P	BBB- (2012.10)	BBB- (2011. 7)
Moody's	Ba1 (2013. 2)	Ba1 (2011.11)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 7. 6 (북한과는 1989. 2. 13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1976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76년), 문화과학협력협정(1979년), 이종과세방지협약(2000년), 관광협력협정(2006년)

□ 우리나라의 대 모로코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2013년 대 모로코 교역 규모는 4억 5,826만 달러로 전년(7억 2,661만 달러) 대비 36.9%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대 모로코 수출은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인조섬유 등을 중심으로 2억 9,256만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동(銅)제품, 기타 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1억 6,57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표 4 >

한·모로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 출	362,317	508,492	292,557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인조섬유
수 입	137,257	218,120	165,702	석유제품, 동(銅)제품, 기타 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5건, 60,777천 달러

- 우리나라의 대 모로코 직접투자는 2013년 말 누계기준으로 6,078만 달러에 불과함. 업종별로는 제조업(3,096만 달러)과 숙박 및 음식점업(2,411만 달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V. 종합 의견

- 모로코 경제는 농업 및 관광업의 비중이 높고 대외여건 변화에 영향받기 쉬운 구조로, 2013년에는 농업 생산 개선에 힘입어 4.4%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 예상되는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한 3.2%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경상수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되는 점은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요소임.

- 반면, 세계 3위의 인광석 생산국이자 미개발 상태의 각종 광물이 존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임. 다만,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채권 및 국채 발행으로 외채규모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우려되는 부분임.

-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주도로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아랍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아랍의 봄”의 여파 속에서도 정부의 정치개혁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위 격화를 피하는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투자로 외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GDP 대비 외채 비중 및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D.S.R.은 2013년 말 기준 9.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5720)
E-mail : oki1122@koreaexim.go.kr